건강한 라미란은
NK뷰키트
숫자로 확인하는 NK세포 활성도
문의 : 080-340-2222 www.nkvue.com

光州日報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20552호 1판 (음력 6월 9일) 2017년 7월 31일 월요일

우암학원 창학67주년 | 취업맞춤형 특성화 선도대학
Good Smile NAMBU
남부대학교

폭염아 가라!…장흥 물축제 물총대전

폭염 속에 '정남진 장흥 물축제'가 지난 29일 장흥 탐진강 일대에서 열렸다. 이날 메인이벤트인 '살수대첩 거리 퍼레이드'에 참가한 관광객들이 서로 물총을 쏘며 환호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살수차 물 뿌리고 넝쿨식물 터널 만들고 건널목엔 그늘막

광주시 '폭염과의 전쟁' 나섰다

도심온도 4~6도 하락 효과
폭염 주의보 11개시·군 확대

폭염주의보가 광주·전남지역 11개 시·군으로 확대되는 등 14일째 푹푹찌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지역은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가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폭염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으며, 이 가운데 광주시의 일부 폭염 대책은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3면〉

30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폭염으로 광주·전남지역 온열질환자가 크게 급증하면서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폭염 대비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광주시는 살수차를 동원해 도로에 물을 뿌리고, 도심 옥상 나무 식재, 건널목 임시 그늘막을 설치하는 등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전남도는 각 마을 별로 마을회관, 경로당, 주민센터에 무더위 쉼터 등을 지정해 운영중이다.

이런 가운데 광주시가 도심 곳곳에 물을 뿌리고 식물 터널을 만드는 일부 폭염 대책이 한낮 온도를 낮추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광주시가 도심의 더위를 식히기 위해 차량 30대를 동원해 주요 58개 도로 59.5km 구간에 하루 평균 160t의 물을 뿌린 뒤 2개 지점의 온도 변화를 측정했는데 온도가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시가 측정한 결과 지난 28일 오후 2시 김대중컨벤션 센터 앞 도로의 표면 온도는 53.2도 였지만 살수 차량이 물을 뿌리고 지난 간 10분 뒤에는 47.6도를 기록해 5.6도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시간 광주시 광산구 송정119 센터 앞 도로에서도 47도 였던 도로 온도가 물이 뿌려진 10분 후에는 40.9도로 6.1도가 떨어졌다.

지자체가 예산을 들여 도로에 물을 뿌리는 건 낭비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실질적인 온도 하락 효과가 확인된 셈이다.

광주시는 여름철 살수 작업이 일시적으로 온도가 떨어진 것 못지 않게 살수 과정을 지켜보는 시민과 운전자들에게 시원함을 주는 심리적인 효과와 함께 '마른 장마'로 인한 도로 곳곳의 미세먼지를 쓸어내는 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번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9월말까지 폭염특보 발령 시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살수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또 그늘이 없는 곳에 나무와 식물을 이용해 터널을 만든 것도 기온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 5·18 민주광장 시계탑부터 중앙무대 사이에 설치한 식물 터널도 온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 광주시가 지난 28일 오후 2시 안과 밖의 온도를 재봤는데 광장은 38도에 달했는데 나무와 덩쿨식물 숲터널의 온도는 34도로 4도가 낮았다.

한편, 전날 오후 4시를 기해 함평·영광·해남군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면서 광주·전남 폭염주의보 발령지역은 모두 11개 시·군으로 늘어났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유입으로 광주·전남 일부 지역은 낮 최고기온이 33도 내외로 오르는 등 덥고 습한 날씨와 함께 아침 기온이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 현상이 이번 주 내내 이어질 것이다"고 전망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北 ICBM급 미사일 한밤 기습 발사
文 대통령 사드 추가배치 지시 '강수'

미사일지침 개정 협상 개시
새정부 대북전략 전환 촉각

북한이 지난 28일 밤 기습적으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전략이 전환점에 올라섰다.

북한이 사실상 '레드라인'(금지선)에 거의 다다랐다는 점에서 종전과는 다른 전략적 변화가 가시화하는 양상이다.

문 대통령이 사드 잔여 발사대 4기(基) 추가 배치를 지시하고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협상을 개시하도록 한 것은 이 같은 변화의 분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북한은 지난 2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전날 밤 고각으로 발사한 미사일이 최대 정점고도 3724.9㎞까지 상승했으며, 998㎞를 47분12초간 비행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수준이다.

북한이 핵탄두를 장착한 ICBM으로 미국 본토에 핵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외교·안보 전략의 판 자체가 뒤흔들릴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이번 도발을 계기로 나머지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배치를 서두르라고 지시하고 이를 미국과 사드 배치에 완강히 반대하고 있는 중국에 '통보'하는 강수를 뒀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미국과 우리 미사일의 성능 강화를 위한 협상에 나설 것을 지시하는 등 독자적 제재 방안 마련에도 나섰다.

정의용 안보실장은 29일 오전 3시께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한·미 미사일 지침의 개정협상 개시를 공식 제의했고, 맥매스터 보좌관은 약 7시간 30분 뒤 이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대북 압박의 와중에서도 문 대통령은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는 '투 트랙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도 나타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 국제 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강력한 제재와 압박에 나서는 한편 북한과의 물 밑 대화도 병행하면서 북핵 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 중국, 러시아의 관계가 복잡하게 꼬여 있는데다 북한과의 대화 통로도 거의 막혀 있다는 점에서 과연 문재인 정부가 북핵 해결을 위한 활로를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한편 미국 전략무기인 장거리폭격기 B-1B 랜서 2대가 30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발사에 대응해 한반도 상공에 출동해 대북 무력시위 비행을 했다. 군 관계자는 "이는 한반도 유사시 즉각 출동해 폭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연합방위태세 능력을 시현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헝가리 "광주 세계수영대회 성공 적극 지원"

부다페스트 방문 윤장현 시장 전방위 협력 이끌어내

윤장현 광주시장이 2019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2017년 대회가 열리고 있는 헝가리 부다페스트를 찾아 부다페스트시와 대회 조직위원회, 세계수영연맹(FINA) 등의 전방위 협력을 이끌어내고 있다.

2019 광주대회를 앞두고 대회기 인수를 위해 헝가리를 방문 중인 윤 시장은 29일 오후(현지시각) 따뜰로쉬 이슈트반 부다페스트 시장과 미클로스 세스탁 대회 조직위원장을 잇따라 만났다.

이슈트반 시장은 "정치, 경제적으로 큰 발전을 이루어온 한국, 그 중에서도 중심도시 광주의 성장 과정을 보면 2년 후 우리보다 더 멋진 대회를 치를 것이다"며 "대회 성공을 위한 전략과 방법, 경기장과 편의시설 운영 등에 관한 실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슈트반 시장은 "나는 기아차를 타고 삼성·LG 텔레비전을 볼 정도로 한국을 좋아하고 신뢰한다"며 "지난날의 아픈 역사를 딛고 일어서 오늘의 성장을 이루어낸 한국인의 저력을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회 주경기장 VIP실에서 만난 미클로스 세스탁 대회조직위원장도 "대회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협력해 광주대회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협력 의사를 밝혔다.

이에 윤 시장은 "2019년은 한국과 헝가리 간의 수교 3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이다"며 "역사와 문화, 지리적으로 닮은 점이 많은 부다페스트와 광주가 협력하면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화답했다.

윤 시장은 대회 마지막 날인 31일(현지시각)에는 경기 시설들을 둘러보고 세계수영연맹(FINA) 관계자들을 면담한 후 오후 10시부터 폐막식에 참석해 대회기를 인수할 예정이다. /윤현석기자chadol@

사랑과 감사의 63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7]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HNT 하나투어

이번 여름휴가도
역시! 무안출발 해외여행

떠나고 싶은 당신을 위해 준비된 추천여행지! 가까운 무안출발로 지금 떠나세요!

클래식 AVPF13_TWA
전일정 5성급호텔 + 호이안 야간시티투어
다낭 · 호이안 · 후에 5일, 6일
총 상품가격 799,000원~
현지지불 : 가이드+기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
7월 27일(목) ~ 10월 29일(일) / 날짜별 요일 상이
티웨이항공
호이안 야간시티투어 ($30상당) 포함

캐주얼 AVPF10_VJ1
전일정 4성급호텔 + 비경관광포함
하노이 · 하롱베이 · 닌빈 5일
총 상품가격 699,000원~
현지지불 : 가이드+기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
6월 3일(토)~8월 14일(월) / 날짜별 요일 상이
비엣젯 항공
특식 2회(염소불고기, 락비엣 레스토랑)

광주일보 고객만을 위한 혜택
셀카파티스튜디오 전시회
무료입장권 1인당 2매 제공
전시일자 : 17년 10월 15일
장 소 : 광주 KIA챔피언스필드 1F 전시장
*프리미엄로드샵 광주충장점 통해 예약시 제공되는 혜택입니다.

하나투어 프리미엄로드샵 광주 충장점
062)228-1199

■[여행상품 가격포함내역] 유류할증료,공항이용료, 전쟁보험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송/숙박/식사요금,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단, 개별여행상품은 미적용). ■ [유류할증료] 유류할증료는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발권일, 환율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가이드경비] 가이드경비는 상품에 따라 여행상품가격에 포함 또는 불포함될 수 있으며 불포함시 현지에서 별도로 경비를 지불하여야 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경비] 현지에서 고객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관광에 참여가능하며 그에 따른 선택경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선택관광 미참여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 관광사업자 등록번호 제26004-1993-6 (종로구청)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41 하나투어 빌딩 ㈜하나투어 ■ 최소 출발인원 10명 기준/ 호텔 2급호텔 이상 2인 1실/교통편 항공/버스/훼리(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객칭찬/불편접수 Tel 1577-1233(ARS 안내번호 0번) ■영업 보증보험 22억 1천만원 가입 ※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된 상품의 상품가격에는 유류할증료와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선택경비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습니다. 선택경비의 금액 및 선택관광 미 선택 시 대체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hanatour.com)를 참조해 주세요. 해외 안전 여행 단계별 국가 지정 현황 | ●여행 유의 ●여행 자제 ●철수 권고 ●여행 금지

여행, 하나면 돼! 하나투어앱에서 확인하세요.

|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